

TOURISM SCOPE

2016. Vol. **36**
ISSN 1739-5089

The Official Magazine of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Jeonju Hanok village, Jeonju city, Korea

Contents



02 City Inside

선사시대 유적을 품다, 울주군



06 Special

익산, 전주, 군산 세 도시 이야기



10 Focus On

다롄에서 꼭 해야 할 버킷 리스트 10

14 Concept Travel

봄철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 6



18 TPO People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한국 문화유산의 보고, 전라북도

20 TPO News & Info

TPO 뉴스 & 정보

22 Zoom in Festival

TPO 도시회원 축제 캘린더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관광 분야 국제기구입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TPO에는 2016년 3월 기준으로 77개 도시 정부와 38개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민간 회원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PO는 아시아·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선사시대 유적을 품다 울주군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 선사시대 그림 수백 점이 새겨진 반구대 암각화, 동해안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대바위공원,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진 나사리 벽화마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울주에 봄이 성큼 다가왔다. 에디터 심민아 사진 <AB-ROAD> 자료실

울주군 여행 정보

위치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서남부에 있는 군
면적	745.91km ²
인구	20만 8299명(2013년 기준)
기후	동쪽을 제외한 삼면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겨울의 북서계절풍을 막아줘 온화한 편이다. 연평균기온 15.2℃이고, 1월 평균기온은 2.4℃, 7월 평균기온은 26.8℃다. 연강수량 1250mm로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린다.
개요	태백산맥 산지로 구성, 동남쪽 일부 지역이 동해에 면하고 있다.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많이 발견돼 선사시대에 이미 취락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소면 중산리, 두동면 이전리, 언양읍 다개리, 온양면 삼광리 등에서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됐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정동진, 호미곶과 함께 국내 최고의 일출 명소. 경상북도 호미곶보다 1분 먼저, 강원도 강릉시의 정동진보다 5분 먼저 해가 뜨는데, 매년 1월 1일이면 대규모 해맞이 축제로 사람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다.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는 장엄한 일출이 장관을 이루고, 바닷가에 세워진 모녀상, 어부상 등 석재 조각상이 아침 햇살에 황금빛으로 물든다.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을 빈다. 뜨거운 소망을 가슴에 안고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소망우체통'. 무게 7t, 높이 5m의 초대형 우체통은 1970년대 사용된 옛 우체통을 본떠 2006년 제작됐다. 무료로 비치된 엽서에 소망을 적거나 소중한 이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로 가득하다. 엽서는 간절곶 해물제 매점, 카페 베네 건물 1층에 비치, 실제로 남울산우체국 직원이 하루 한 번, 오후 1시에 우편물을 수거해간다.

주소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1길 39-2 전화 간절곶 등대 +82-52-239-6313 운영시간 간절곶 등대 4~9월 09:00~18:00, 10~3월 09:00~17:00, 월요일 휴관



예술과 만난 바닷가 마을 나사리 벽화마을

간절곶 소망길 4구간의 시작점인 나사리. 2012년 초까진 그저 허름한 바닷가 마을이었다. 그러다 2012년 7월, 부산대 미술 동아리 회원들과 고리원전 직원으로 구성된 2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의기투합해 '나사리 벽화마을' 프로젝트를 시작, 수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마을 곳곳에 알록달록한 벽화 작품을 완성했다. 덕분에 지금은 통영 동피랑마을이나 부산 벽화마을도 부럽지 않은 관광 마을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벽화가 밀집한 나사리 해안길은 소망길 트레킹 구간의 일부로, 트레킹 루트를 따라 형형색색의 벽화를 구경할 수 있다.

주소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간절곶 해안 코스

장인이 빛나는 귀한 옹기 외고산 옹기마을

국내 최대의 전통 민속 옹기마을. 1957년 경북 영덕에서 옹기를 만들던 고 허덕만 씨가 이주해 오면서 마을이 형성됐다. 1960~80년대까지만 해도 도공 400명이 거주할 만큼 번창했다. 현재 마을에는 2대째 옹기를 만드는 허진규 장인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장인 8명이 옹기종기 모여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곳곳의 공방과 가마에선 장인들이 재래 방식으로 전통 옹기를 제작, 판매한다. 일일 옹기 체험도 가능하다.

주소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3길 36 전화 아카데미관 +82-52-237-7893, 울산옹기박물관 +82-52-237-7894 체험비 7000원



파도치는 바위 공원 대바위공원

간절곶에서 해안길을 따라 걷다보면 뾰족한 바위가 무성한 암초밭이 보이는데, 바로 이곳이 대바위공원이다. 해파랑길에 있는 '대왕암공원'과 헛갈리지 말 것. 대왕암공원만큼 규모가 크진 않지만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필요한 시설은 다 갖춰져 있다. 절벽처럼 우뚝 솟아 있는 대바위에 올라가면 가까운 진해해수욕장부터 멀리 간절곶까지 동해안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절벽 밑 10m 아래 뾰족하게 솟아 있는 암초밭에 파도가 몰아닥치는 광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해리 대바위공원





선사시대의 예술 작품 반구대 암각화

울산 태화강 지류인 대곡천변 절벽에 새겨진 암각화. 국보 제285호로, 제작 연대는 약 7000~3500년 전 신석기 시대로 추정된다. 너비 약 8m, 높이 약 3m의 바위 표면에 고래, 거북, 물고기, 사슴, 멧돼지, 호랑이, 표범, 여우, 늑대 등 20여 종의 동물이 그려져 있다. 또 총 53점의 고래 그림도 볼 수 있는데, 특히 북방긴수염 고래, 향유고래를 정밀하게 묘사해 눈길이 간다. 암각화 앞에 대곡천이 흘러 아쉽게도 건너편에서 망원경으로 봐야 한다. 게다가 암각화가 물에 잠기지 않는 갈수기, 11월에서 5월에만 볼 수 있는 귀한 그림이다. 세계에 수많은 암각화가 존재하지만, 반구대처럼 동물과 종을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상세한 유적은 찾기 어렵다.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포경 유적이자, 북태평양의 독특한 선사시대 해양 문화를 담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었다.

주소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안길 285



국내 유일의 암각화 박물관 울산암각화박물관

2008년 개관한 암각화 박물관. 국내외 암각화 자료와 선사시대 울산의 자연환경, 당시의 생활상을 담은 각종 전시물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장 입구엔 백남준 작품을 연상케 하는 '선사게이트'를 설치, 암각화 영상이 탐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다. 전시장의 하이라이트는 반구대 암각화와 천천리 각석의 실물 모형. 배를 타고 도구를 이용해 고래 사냥을 하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대곡천에 그려진 실제 암각화는 가까이서 볼 수 없으니, 이곳에서 먼저 보고 가는 것도 좋다.

주소 울주군 두동면 반구대안길 254 전화 +82-52-229-4797 운영시간 09:00~18: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bangudae.ulsan.go.kr



울주군 역사탐방 코스



전통 한옥에서 즐기는 힐링 타임 반구대 팜스테이

반구대 가는 길가에 자리한 300년 전통의 한옥 '집청정(集淸亭)'. 18세기 조선 영조 때 운암 최신기가 지은 경주 최씨 문종의 정자로, 울산에 남아 있는 15개 정자 가운데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전국 각지의 문인들이 몰려와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현재 14대손 최원석 씨가 '팜스테이'를 운영, 선조들의 옛집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다. 1933년 중수한 탁 트인 누각에서 한복을 입고 다도 체험을 즐기고, 선사시대 움집에서 지렛대를 이용해 고인돌 옮기기, 부싯돌 체험, 돌도끼 만들기 등 다양한 선사 체험을 할 수 있다. 이곳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한옥스테이로, 청정 자연과 한옥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하룻밤 묵어도 좋다.

주소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안길 285 전화 +82-52-263-6425 체험비 다도 성인 1만 원, 초등학생 6000원, 선사움집체험 초등학생 7000원, 생활예절 성인 1만 원, 초등학생 6000원, 우리한복입어보기 성인 7000원, 초등학생 6000원, 천연염색 초등학생 6000원





선비들도 인정한 절경 선바위

태화강 강변 길을 걷다 강폭이 좁아지며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바위가 보이기 시작하면 선바위공원에 들어왔다는 뜻. 태화강을 따라 형성된 기암괴석 중 유난히 높게 솟아오른 뾰족한 바위가 바로 선바위다. 선바위는 울산의 대표 명소 중 하나로 예전부터 빼어난 경치에 반한 선비들이 즐겨 찾았다고 한다. 지금은 선바위 일대가 울산 시민이 캠핑이나 트레킹 등 각종 액티비티를 즐기는 공원 구실을 하고 있다. 선바위를 기점으로 울산 시내를 벗어나게 되는데, 트레킹 구간 주변의 풍경도 고층 아파트에서 나무 우거진 숲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주소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살살 녹는 한우의 육질
언양불고기**

쇠고기를 얇게 썰어 양념한 불고기. 언양 지방 향토 음식으로, 언양은 예부터 도축장, 푸줏간이 많아 쇠고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겉보기엔 고기를 잘게 다진 너비아니, 떡갈비쯤으로 보이지만, 씹는 순간 육질이 한올 한올 생생히 살아난다. 36년 전통의 맛집 '언양진미불고기'는 청정 지역에서 자란 한우를 사용. 마늘, 간장, 참기름 등 양념이 고루 배어 입안에서 살살 녹는 정도로 부드럽다. 석쇠에서 직화로 구워 손님상에 나오는데, 은은한 불판 위에 올려져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맛볼 수 있다. 참숯 향과 고소한 양념 맛이 어우러져 불철 깔깔한 입맛을 돋워준다. 채소 싸먹으면, 상큼한 봄 향기가 입안 가득 번진다.



주소 울주군 삼남면 중평로 33 전화 +82-52-262-1375 가격 언양불고기 1만 7000원, 진미불고기 2만 2000원

울주군 역사탐방 코스



대곡천 유물 창고 대곡박물관

암각화박물관에서 약 2k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한 태화강 100리길 2구간의 마지막 체크 포인트. 대곡댐 부지에서 출토된 약 1만 30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설립한 박물관이다. 내부에는 유구와 각종 토기류, 철기류 등 청동기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야외에는 대곡댐의 유물 발굴 과정을 그대로 복원해놓았다. 태화강 100리길은 대곡박물관을 거쳐 탐골샘이 있는 백운산 입구까지 이어진다. 남은 코스의 길이는 18km 정도. 5시간이면 완주할 수 있다.

주소 울주군 두동면 서하천천로 257 전화 +82-52-229-6638 운영시간 09:00~18:00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dgmuseum.ulsan.go.kr



익산, 전주, 군산 세 도시 이야기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익산, 전주, 군산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있는 익산에서 백제 무왕의 흔적을 따라 천천히 걸었고, 한옥 기와지붕이 물결치는 전주에서 한복을 입고 풍류를 즐겼다. 그리고 근대건축물이 즐비한 군산에서 100년 전 시간 속을 거닐었다. 에디터 심민아 사진 <AB-ROAD> 자료실

전라북도 여행 정보

위치	대한민국의 서남부에 위치한 도.
면적	8061.41 km ²
인구	186만 9711명(2015년 기준)
기후	연교차가 큰 대륙성기후로, 연평균기온이 12~13℃다. 기후는 남북 간의 차보다는 동서 간의 차가 더 심하다. 여름은 주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은 편이다.
개요	189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라남도과 전라북도로 분리되었고, 1995년 도농통합 합으로 익산군과 이리시가 익산시로 개편되면서 행정구역은 6시, 8군, 2구 241읍·면·동이 되었다. 현재 도청 소재지는 전주다.



백제의 역사를 따라 걷다

익산

백제 무왕 시대에 조성된 왕궁 터인 '익산 왕궁리 유적', 백제의 건축 기술이 녹아든 '익산 미륵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고대 동아시아의 문명을 엿보았다.



백제 시대 왕궁 터 익산 왕궁리 유적

백제 30대 무왕(武王)이 천도해 건립한 왕궁 터. 사적 제408호인 익산 왕궁리 유적은 면적 21만 6862m² 규모로, 1만 10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되었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 발굴 조사를 진행, 백제 말경부터 통일신라 초기, 통일신라 말기 등 3시기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일신라 초기엔 사찰로 용도가 변경, 실제 석탑과 금당지, 강당지가 발견되었다. 특히 국보 제239호인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이 가장 큰 볼거리. 석탑 안에서 금제금강경판과 사리병, 불상, 옥 등이 발굴, 국보 123호로 지정되었다. 더 많은 유물이 보고 싶다면 '왕궁리유적전시관'으로 향하자.

주소 전북 익산시 왕궁면 공성로 666 전화 +82-63-859-5778 운영시간 09:00~18:00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iksan.go.kr/wg



동아시아 최대 가람 익산 미륵사지

미륵산 남쪽 자락에 자리한 사적 제150호. 지난해 익산 왕궁리 유적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특히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탑으로 알려져 있다. 목탑이 지배적이던 당시에 무왕은 삼국 최초로 석탑을 세워 위상을 높였고, 동양 최대의 절, 미륵사를 세웠다. 1990년부터 발굴 조사 중인데, 1998년 3탑 3금당의 독특한 가람 구조가 발견됐다. 현재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콘크리트를 발라놓은 석탑을 해체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대적인 복원 작업 중이다.

주소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전화 +82-63-290-6784 운영시간 09:00~18: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가 함께 잠들다 익산 쌍릉

백제시대의 무덤으로 사적 제 87호. 200m 간격을 두고 소나무 숲 사이로 2기의 봉분이 나란히 자리해 있다. 7세기 전반의 특징인 굴식돌방무덤 형식을 띠고 있어 백제 말 무왕과 그 왕비 선화공주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인근에 미륵사가 있고, 백제 무왕이 익산 마릉지 인근에서 태어나기도 했다. 북쪽의 무덤은 '대왕묘', 남쪽 무덤은 '소왕묘'라 한다. 1917년 발굴 당시, 봉토 주위엔 호석을 두른 흔적이 발견됐고, 내부엔 석실이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굴꾼에 의해 무덤 속 부장품은 대부분 사라졌다.

주소 전북 익산시 석왕동 산 55 전화 +82-63-859-5778 입장료 무료



백제 불교미술의 정수를 맛보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안타깝게도 현재 미륵사지 석탑은 해체 후 복원 작업이 한창이라 바닥에 있는 기둥만 볼 수 있다. 새로 단장한 동탑이 어느 정도 위안을 주지만,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 가면 미륵사에서 출토된 1만 9000여 점의 유물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미륵사의 1/50 축소 모형이 시선을 끄는데, 미륵을 모신 금당과 탑을 각각 3곳에 세운 것이 독특하다. 특히 2009년 석탑을 해체할 때 중흥 기둥에서 나온 '사리장엄'을 눈여겨볼 것. 그중 금으로 제작된 '사리봉영기'에는 미륵사 창건 배경과 석탑 건립 연대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사리장엄에서 나온 3층의 사리기와 다양한 공양품도 백제의 뛰어난 금속공예 기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주소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 전화 +82-830-0900 운영시간 09:00~18: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mireuksaji.org

선비의
풍류를
즐기다

전주

예부터 풍류를 즐길 줄 알았던 전주 사람들.
시선 닿는 어디든 빼어난 경치가 펼쳐지고, 기름진 음식이 넘쳐난다.
풍류를 즐긴 그 시절 선비가 되어 전주 구석구석을 둘러보자.



한복 입고 걷기 좋은 길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한옥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고즈넉한 한옥마을. 최근 새로운 풍경이 더해졌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여행자들이 한옥마을 곳곳을 거닐기 시작한 것. 한옥마을의 역사는 1910년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옥마을에서 전주의 멋과 풍류를 제대로 느끼려면, 기와집이 켜켜이 들어앉은 '경기전'이 제격.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만난다는 들뜬 마음을 안고 홍살문을 지나 내부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경사스러운 터에 지은 궁궐'이라는 뜻의 경기전은 1410년 태종 10년에 창건됐다. 울창한 나무로 뒤덮인 고색창연한 경기전 안은 한복 입은 이들로 가득하다.

경기전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 전화 +82-63-287-1330 운영시간 09:00~19:00 입장료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전주식 술 문화 막걸리와 가게 맥주

전주에 있는 8개의 막걸리 골목 중 가장 오래된 '삼천동 막걸리골목'. 15년째 운영 중인 '용진집'은 입구부터 장사진을 이룬다. 막걸리 한 주전자를 시키자 꼬막찜, 편육, 두부김치, 고등어조림, 콩치구이 등 20여 가지 안주가 푸짐하게 나온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웅성한 대접을 받으니 술맛도 꿀맛이다. 막걸리로 얼큰해진 취객들은 2차로 가맥집을 가는 게 코스. 출판사와 인쇄소가 밀집한 출판거리, 경원동에 가면 가맥집이 모여 있다. '가맥'은 '가게 맥주'의 줄임말로, 흥이 오른 취객들이 동네 슈퍼마켓에 삼삼오오 앉아 안주와 함께 맥주를 마시는 것. 전일슈퍼는 편한 추리닝에 슬리퍼 차림으로 가서 먹기 딱 좋다. 안주는 황태와 감오징어구이뿐. 약한 연탄불에 포슬포슬하게 구워내는데, 생선살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다.

용진집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산로 14 전화 +82-63-224-8164 가격 막걸리 1주전자 2만 원 전일슈퍼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16 전화 +82-63-284-0793



과거로 시간 여행 전주부성 옛길

전주시의 옛 이름 전주부(全州府). 과거 전주부성 4대문 안의 숨어 있는 옛길을 따라 걸었다. 과거 4대문 안은 전라감영지(도청), 전주부영지(시청)가 있었고, 양반과 지주들이 평평거리며 살았던 금싸라기 땅이다.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 시작된 '전주부성 옛길' 코스는 북문이 있던 오거리문화광장을 지나 조선 시대에 사신과 관리가 머물렀던 풍패지관(객사), 그리고 고바느질 골목으로 이어진다. 바느질 골목은 두 사람이 팔 벌리고 서

면 딱 찰 정도로 비좁지만, 과거 남부시장에서 남부배차장으로 향하던 사람들로 바글바글하던 변화가였다. 바느질 골목에서 빠져나오면 약약 냄새 풍몰 나는 약전거리와 차이나거리에 이른다. 100가구의 학교들이 차이나거리에 모여 살았다. 근대문화유산 '중국어 포목상점(등록문화재 제174호)'과 '박다옥(등록문화재 제173호)'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차이나거리에서 동문 방향을 따라 일직선으로 걸으면 동문예술거리에 닿는다. 추억이 켜켜이 쌓인 '삼양다방'도 큰 볼거리. 1952년에 문을 연 국내 최고령 다방, 삼양다방은 과거 문인과 예술가 등 인텔리 층이 전시와 시낭송회를 열던 곳이다.

삼양다방(전주영호소품창고)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94 전화 +82-63-231-2238 운영시간 10:00~19:00, 일요일 휴무



근대
역사속을
거닐다

군산

역사의 아픔이 곳곳에 남아 있는 1900년대 건축물이 모여 있는 거리.
구군산세관을 중심으로 부둣가에 줄지어 있는 근대건축물을
둘러보고 나면 마음이 아릿해진다.



중세 유럽풍 건축 구군산세관

서유역, 한국은행과 함께 국내에 현존하는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 여전히 굳건한 자태로 남아 있는 구군산세관은 1990년대에도 업무를 보던 곳. 현재는 1993년에 지어진 바로 옆 신청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독일인이 설계한 이 건물은 벨기에산 붉은 벽돌 등 고급 수입 건축재를 사용해 유럽풍으로 지어졌다. 단단한 화강석으로 세운 주춧돌과 생선 비늘 같은 동판 지붕, 뾰족한 첨탑이 세월의 풍파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낮에는 세관 사무실로, 밤에는 일본인들의 연회장으로 사용됐다.

주소 전북 군산시 해망로 244-7 전화 +82-63-454-7870 운영시간 09:00~18:00, 월요일 휴관



가까이에서 바라본 적산가옥 구히로쓰 가옥

일제강점기에 대규모 포목상으로 부를 쌓은 일본인 히로쓰가 건축한 전형적인 일본식 가옥. 5개의 대문이 있었을 정도로 이 근방에서 명성을 날리던 가옥이다. 집 안에 들어서면 동그런 창이 눈에 띈다. 중국 왕실의 모양을 본뜬 창으로 구운 대나무를 등골게 말아낸 것. 신을 모시는 제단은 이 집에서 가장 정성을 쏟은 공간이다. 중국에서 가져온 삼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 자체에 광이 날 정도로 귀한 자재다. 또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창을 많이 내고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좁은 계단을 들여놓은 일본식 가옥 형태가 고스란히 재현됐다.

주소 전북 군산시 구영1길 17 전화 +82-63-442-5876 운영시간 여름 10:00~18:00, 겨울 10:00~17:00, 월요일 휴관



옛 군산의 풍경 속으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011년에 개관한 역사박물관.

근대문화역사거리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들르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층은 해양물류역사관과 어린이체험관, 2층은 특별전시관, 3층은 근대생활관으로 일제의 압제에도 굴하지 않고 치열한 삶을 살았던 군산 사람들의 모습을 재현해냈다. 군산항과 상점, 기차역 등 1930년대 군산을 이루고 있던 공간들이 세트장처럼 꾸며져 있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다. 박물관은 체험 프로그램이 많아 아이들도 지루하지 않게 관람할 수 있다.

주소 전북 군산시 해망로 240 전화 +82-63-454-7870 운영시간 09:00~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



국내 유일 일본식 사찰 동국사

1913년 일본인 승려 우치다에 의해 '금강선사'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동국사'는 1970년,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선운사에 증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찰 안엔 문화재로 등록된 대웅전과 승려들이 거처하는 요사채, 종각 등이 자리한다. 일본에서 들어온 쓰기목(삼나무)을 재료 삼아 일본 에도 시대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화려한 단청으로 꾸민 우리네 사찰과 달리 절제된 장식의 대웅전 처마는 단조롭다. 팔작지붕 추녀 끝에 달린 물고기 모양의 종, 새하얀 꽃을 그려 넣은 단청 등 사찰 곳곳에서 일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대웅전 뒤뜰엔 일본산 대나무가 숲을 이루는데, 사계절 내내 초록빛을 띤다.

주소 전북 군산시 동국사길 16 전화 +82-63-462-5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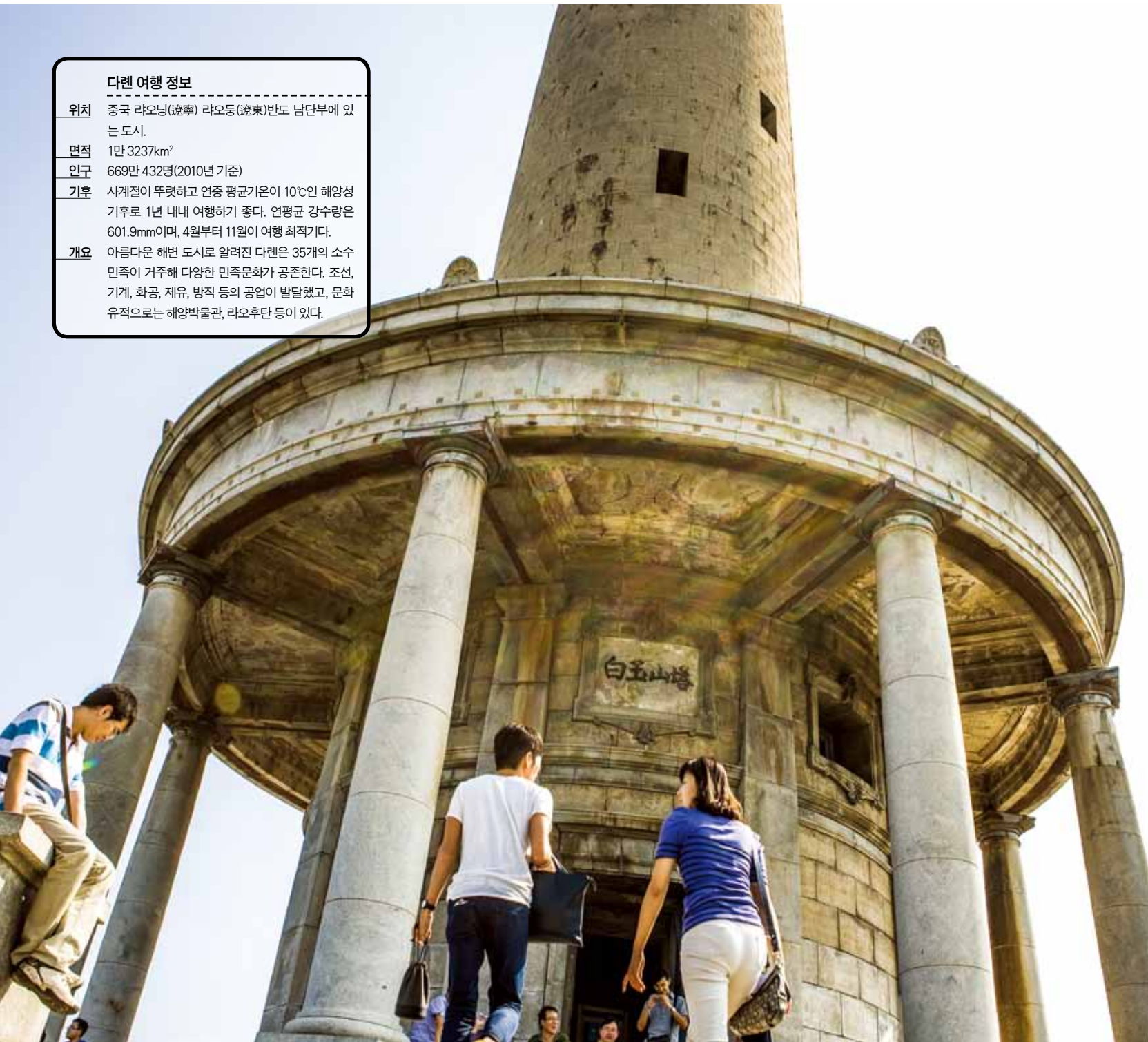


다롄에서 꼭 해야 할 버킷 리스트 10

다롄은 여름엔 남쪽의 해수욕장이, 봄·가을엔 남서쪽과 남동쪽의 골프장이 활황을 맞는다.
국내 여행자나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인기다. 하지만 물놀이와
골프 외에도 다롄 곳곳엔 아가지기하고, 때론 황당하고, 그리고 감동 어린 관광지들이 숨어 있다.
다롄에서 꼭 해야 할 10가지를 모았다. 에디터 심민아 사진 <AB-ROAD> 자료실

다롄 여행 정보

위치	중국 랴오닝(遼寧) 랴오둥(遼東)반도 남단부에 있는 도시.
면적	1만 3237km ²
인구	669만 432명(2010년 기준)
기후	사계절이 뚜렷하고 연중 평균기온이 10℃인 해양성 기후로 1년 내내 여행하기 좋다. 연평균 강수량은 601.9mm이며, 4월부터 11월이 여행 최적기다.
개요	아름다운 해변 도시로 알려진 다롄은 35개의 소수 민족이 거주해 다양한 민족문화가 공존한다. 조선, 기계, 화공, 제유, 방직 등의 공업이 발달했고, 문화 유적으로는 해양박물관, 라오후탄 등이 있다.





1 중국 전통 연극 '경극' 관람하기

다롄 시내엔 3곳 정도의 극장에서 경극을 공연한다. 그중 홍지 그랜드 스테이지(Hongji Grand Stage)는 가격이나극의 난이도 면에서 가장 대중적이다. 1908년 지어진 건물로 이름도, 용도도 수차례 바뀌었다. 약 400석 규모의 극장으로 보통 하루 2회 공연하며, 다롄 시 극단이 공연할 경우 15~100위안, 중국 명문 극단이 공연할 경우 50~200위안의 입장료를 받는다.

주소 Dalian-Shi Zhongshan-Qu, Minsheng Street 59 전화 +86-411-86328777 홈페이지 www.dlhjdw.com



2 뤼순 바이유 탑 전망대 오르기

뤼순만(Lushun Bay)에서 북쪽으로 차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바이윤(Baiyun) 언덕이 나온다. 이 언덕 꼭대기엔 뤼순 어디서든 보이는 '뤼순 바이유 탑(Lushun Baiyu Tower)'이 있다. 러일전쟁 때 일본인이 만든 것으로 전쟁에서 죽은 2만 명의 일본인을 추모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모양새도 촛불을 닮았다. 약 67m 높이로 탑 전망대에 오르면 뤼순 구는 물론 다롄 시 전체가 발아래 펼쳐진다.

주소 Dalian-Shi Lushun-Qu Baiyushan Street No. 1 전화 +86-411-86621445



3 인민 거리에서 쇼핑하기

북한의 김정일 주석이 다롄을 찾으면 묵었다는 5성급 호텔 푸라마(Furama)를 비롯해 최고급 호텔이 줄지어 있는 인민 거리(Renmin Road)는 다롄의 중심가이자 소비 수준이 현격히 높은 곳이다. 푸라마 호텔 지하에는 발리, 저스트 카발리, 뱅앤드올롭슨 등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며, 푸라마 호텔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다롄 시대 광장(Dalian Times Square)에는 디오르, 세린느, 프라다, 토즈, 조르주 아르마니 등의 명품 브랜드가 들어서 있다. 푸라마 호텔 맞은편에도 명품 브랜드 쇼핑몰이 있다. 더 갤러리아 명점방(The Galleria Fashion Walk)으로 이곳에는 카르티에, 막스마라, 엠프리오 아르마니 등의 매장이 있다.

주소 Dalian-Shi Zhongshan-Qu Renmin Road 운영시간 다롄 시대 광장 10:00~21:00, 푸라마 호텔 지하 09:30~21:00, 더 갤러리아 명점방 09:00~21:00

4 뤼순 감옥에서 역사 체험하기

뤼순은 행정구역상 다롄시 뤼순구에 해당하는 지명으로 다롄 중심가에서 차로 1시간 정도 이동한다. 1902년 러시아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후 일본인들이 사용했다. 건물이 붉은색과 검은색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는 러시아와 일본의 바통 터치를 한눈에 보여준다. 검은색 부분은 러시아인이 만든 건물이며, 붉은색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이 증축한 건물이다. 이렇다 할 전시품은 거의 없고 예전의 감옥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주소 Dalian-Shi Lushun-Qu Xiangyang Street No. 139 운영시간 09:00~17:00



5 도심 속 수중 휴가 즐기기

1994년 1월 문을 연 수중 테마파크 '선 아시아 오션월드(Sun Asia Ocean World)' 118m의 수중 터널을 갖춘 해양 수족관은 200종, 7000마리 이상의 해양 동식물과 마주할 수 있는 곳이다. 바다표범을 시작으로 펭귄, 돌고래, 물개 등을 볼 수 있다. 해양 수족관 외에도 바이킹, 관람차, 범퍼카 등의 어트랙션과 공원을 갖추고 있다. 오션월드 앞쪽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어 가볍게 산책하기에 좋다.

주소 Dalian-Shi Shahe-Qu Zhongshan Road No. 608-6-8 전화 +86-411-4581113



6 해양 공원에서 물놀이하기

선 아시아 오션월드가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테마파크라면, '다롄 라오후탄 해양공원(Dalian Laohutan Ocean Park)'은 해수욕부터 수중 쇼 관람, 어트랙션과 보트 타기까지 한층 다양하고 종합적인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다. 다롄은 관광지 등급을 A의 개수로 매기는데 라오후탄 해양공원은 최상급인 AAAAA 관광지다. 한 청년이 인어를 습격한 호랑이를 퇴치하고 죽었다는 전설이 얽혀 있다. 북극 해양 동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폴 수족관(Pole Aquarium), 수심 중의 산호를 만날 수 있는 코럴 홀(Coral Hall), 새들과의 산책이 가능한 '새가 노래하는 숲(Bird-Singing Woods)', 그리고 번지 점프대와 케이블카 등을 갖추고 있다. 작은 반도 전체가 해양 리조트로 구성되어 있다.

주소 Dalian-Shi Zhongshan-Qu Mid Binhai Road No. 9 홈페이지 www.laohutan.com



7 다롄에서 향긋한 커피 마시기

다롄의 커피는 맛이 다소 심심하다. 스타벅스는 달랑 세 곳이라 매번 찾아가기 힘들다. 인민 거리 한복판에 있는 일리(illy) 카페는 오며 가며 쉽게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더 갤러리아 명점방 2층에 있으며, 구조가 오픈형임에도 분위기가 꽤 이뉘다.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커피 음료가 충실하며, 간단한 베이커리 메뉴도 판매한다. 호텔 커피숍보다 훨씬 양질의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주소 Dalian-Shi Zhongshan-Qu Renmin Road The Galleria Fashion Walk 2F 운영시간 10:00-21:00

8 동계관산에 올라 전쟁 흔적 찾기

동계관산(Lushun Dongjiguan Hill)은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군이 만든 군사 요새다. 뤼순 중심가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 산재를 따라 30개의 방공포와 기념탑이 있다. 1904년 300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이 이곳에서 생활하며 전쟁을 했다고 전해지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인이 산속에 터널을 만들었다고 한다. 천천히 돌아보면 러일전쟁의 긴박함을 느낄 수 있지만 사전지식 없이 찾은 관광객이라면 다소 심심할 수 있다.

주소 Dalian-Shi Lushun-Qu Qixin Street No.1 전화 +86-411-86287271



9 한적한 퍼브에서 맥주 한잔 기울이기

둥핑가(Dongping Street)엔 일본과 유럽의 맥주를 파는 오픈형 가게가 몰려 있다. 작은 광장을 중심으로 작은 퍼브와 일본식 이자카야가 오후 6시 넘어 문을 연다. 그중 '천마'라는 이름의 이자카야는 크로켓, 회 샐러드, 오징어무침을 잘한다. 아사히를 비롯해 일본 생맥주도 갖추고 있다. 다렌의 술집과 클럽은 규모를 뽐내는 왓지결한 곳이 많은데 둥핑가의 가게들은 조용하지만 적당한 흥이 있다.

주소 Dalian-Shi Zhongshan-Qu Dongping Road



10 대규모 모래사장에서 해수욕 즐기기

다렌에는 4대 해수욕장이 있다. 동쪽부터 방추이다오(Bangchuidao) 해수욕장, 푸자좡(Fujiazhuang) 해수욕장, 진샤탕(Jinshatan) 해수욕장, 그리고 가장 서쪽의 싱하이완 해수욕장(Xinghai Bay Bathing Place). 800m 길이의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싱하이완 해수욕장은 매년 여름이면 관광객들로 붐빈다. 파도가 높지 않아 해수욕을 즐기기 좋고, 서비스 시설도 괜찮은 편이다. 입장료가 무료.

주소 Dalian-Shi Shahe-Qu Zhongshan Road



다렌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 6

다렌의 식탁은 소박하고 아담하다. 갑작스러운 달밭의 등장에 놀라긴 했지만, 우리네 6월 반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렌에서 맛본 음식 6.

요우티아오 油条

'궈즈'라고도 하며 아침이 바쁜 일꾼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겨 먹는다. 찰기 있는 밀가루 반죽을 기름



에 튀겨낸 일종의 빵이다. 공기루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

차오칸도우푸 炒豆腐



건두부 볶음. 중국 음식점에서 서너 개 묶음 메뉴를 시키면 항상 포함되어 있다. 건두부를 채소와 함께 볶은 음식으로 다소 심심하지만 담백하다.

푸룽 시인수탕 芙蓉鲜蔬汤

다렌의 KFC엔 수프 메뉴가 있다. 닭 국물을 베이스로 청경채, 당근 등 각종 채소가 들어 있다. 아침 식사로 적당하며 햄버거와 함께 먹어도 나쁘지 않다.



렁몐 面条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냉면이다. 채 썬 오이, 슬라이스한 토마토, 삶은 달걀이 들어가며 약간 매운 양념이 들어 있다.

탕추러우이 糖醋肉

다렌식 탕수육. 작게 썬 돼지고기에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겨냈다. 소스에 시큼한 맛이 적으며 단맛이 약간 강하다.



둔비두유 炖比目鱼



광어조림. 다렌은 항구도시라 생선이 신선하지만 수출을 많이 해서 가격이 싸진 않다. 간장을 기본 양념으로 한다.

봄철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 6

Spring Trekking in Asia

세상에 길은 많다고 하지만 그 길이 다 같을 수는 없다. 트레킹 여행의 매력은 수없이 또 다른 길에서 마주치는 자연과 사람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다. 세상이 다시 싱그러운 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하는 봄. 움츠린 몸을 펴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보자.

에디터 안휘승 사진 <AB-ROAD> 자료실, 중국국가여유국





Yakushima

야쿠시마

일본, 가고시마

야쿠시마 섬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 <원령공주>의 배경이 된 곳으로 유명하다. 진녹색 고목들과 아열대 특유의 거친 공기 속에 자라난 푸르스름한 이끼 등이 여행자에게 마치 태고의 생태계를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아름다운 경치에 비해 외국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만큼 일본을 대표하는 네이처 트레일로 내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야쿠시마 트레킹은 크게 두 가지 루트로 나눌 수 있다. 미야노우라에서 수령 7200년 된 삼나무 '조몬스기'를 향해 시라타니 운수이코 숲을 거치는 트레일과 안보항에서 시작해 원령공주의 이름을 딴 '모노노케히메노모리숲', 그리고 3000년 된 고목 야요이스기를 거치는 아라카와 트레일을 밟는 것이다. 두 시작점 다 가고시마에서 페리로 갈 수 있어 어렵지 않게 트레킹을 시작할 수 있다. 섬 중앙에 있는 조몬스기를 향한 트레일이 가장 인기 있는 코스지만 완주하는 데 10시간 이상 걸리는 것이 흠. 부담된다면 버스를 이용해 시라타니 운수이코에서 시작하는 단거리 코스를 밟는 것을 추천한다.



Baiyun Mountain

바이윈산

중국, 광저우



광저우시 북부에 자리한 바이윈산은 하얀 구름으로 감싸인 산세의 모습이 절경을 연출하는 광동성의 명산이다. 수려한 풍광뿐 아니라 시내에서 버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진 코스 등으로 광저우 시민에게 도시 최고의 트레킹 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382m로 서울의 관악산보다 낮지만, 트레킹 구간에 7개의 관광구역이 조성되어 있어 걷는 것 외에 다채로운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유원지처럼 인파로 북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로 정상으로 향하는 코스는 의외로 한산한 편. 입구에서 정상까지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지만, 중간에 장미정원이나 식물원, 사원 등을 구경할 경우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정상에 이르는 코스가 성에 안 찬다면 정상에서 바이윈산의 다른 봉우리로 이어지는 코스에 나서거나 바이윈산 일대를 도는 완주 코스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트레킹을 마친 후 산 입구 쪽에 자리한 관광구역에서 볼스레이나 번지점프 등의 놀이기구를 타보는 것도 바이윈산을 즐기는 방법의 하나다.





Mount Bromo 브로모 산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수라바야에 있는 브로모 화산의 높이는 해발 2300m.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높진 않지만, 가장 많은 방문객을 불러 모으는 산이다. 아직 가시지 않은 마그마 열기가 후끈하게 느껴지는 화산 등선을 따라 걷다 보면 초록빛 숲에서의 트레킹과는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브로모 화산을 뒤덮고 있는 모래바다의 끝자락에 위치한 '세모로 라왕' 마을에 숙소를 잡고 버스나 지프를 이용, 브로모 트레킹을 시작할 수 있다. 일출을 보기 위한 투어는 대부분 오전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새벽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는 것이 좋다. 모래바다를 가로질러 화산에 도착하면 검은 화산재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계단을 따라 정상까지 오르는 시간은 넉넉잡아 10분. 분화구에서 올라오는 하얀색 연기와 코를 찌르는 황산 냄새가 언젠가 또 한 번 요동칠 활화산의 모습을 암시한다. 보통 브로모 투어는 정상에서 세모로 라왕 마을로 되돌아가는 루트로 끝나지만, 좀 더 어드벤처를 즐기고 싶다면 화산 둘레를 도는 트레일을 걸어보자.



Dakeng Scenic Area

다컹 삼림유락구

타이완, 타이중



타이중 베이통 지구에 자리한 다컹 삼림유락구는 타이중 시를 둘러싼 수많은 녹지 중에서도 가장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다. 시내에서 가까워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갈 수 있고,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10개 코스가 마련되어 있어 가벼운 산책부터 장시간 완주까지 누구나 기호에 맞는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다컹 삼림유락구의 트레킹 코스는 난이도별로 1번부터 10번으로 구분되어 있다. 1번부터 4번은 상급자를 위한 코스로 길이는 1.5km 정도지만, 가장 높은 지점이 해발 800m가 넘어 경사가 심하고 밧줄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길도 험한 편이다. 5번 코스는 1~4번 코스를 연결하는 메인 구간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곳곳에 전망대가 있어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다. 6~10번 코스는 트레킹 코스라기보다 평평한 포장길로 산림지대 입구의 논과 과수원 등을 거쳐 5번 메인 구간으로 연결된다. 트레킹 구간 곳곳에서 음식을 해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삼림유락구 내 조리를 허가하고 있어 요리는 물론 텐트까지 쳐놓고 캠핑을 하는 여행자도 많은 편이다.





Haeparang Trail

해파랑길

대한민국, 울산

해파랑길은 동해안을 따라 부산부터 고성까지 이어진 길이 770km의 우리나라 최장 트레킹 코스. 진해해변에서 시작하는 울산 구간은 그중에서도 볼 것이 풍부한 명품 트레킹 코스로 유명하다. 특히 봄에는 선암호숫가를 가득 메우는 분홍색 벚꽃과 방어진항에서 맛볼 수 있는 신선한 제철 해산물을 즐길 수 있어 많은 트레커가 해파랑길을 찾곤 한다. 구간 전체 길이는 80km가 넘지만, 5개의 짧은 코스로 나뉘어 있고, 경사도 가파르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가벼운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진해해변에서 출발, 첫 번째 목적지는 외고산 웅기마을. 장인 8명이 운영하는 공방에서 전통 방식으로 웅기를 만드는 장인들의 실력도 살펴보고, 직접 웅기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웅기마을을 지나 2시간 정도 걸다 보면 덕하역이 보이며 울산 시내에 들어서게 된다. 벚꽃이 만발한 선암호수공원이나 대나무밭이 있는 태화강 쪽으로 향하는 게 보통이지만, 복잡한 시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바로 동해 바다를 볼 수 있는 방어진항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좋다. 해파랑길은 방어진항을 지나 정자항까지 이어지는데, 방어진항 트레킹 구간이 가장 인기가 많다.



Penang National Park

페낭 국립공원

말레이시아, 페낭



페낭 북쪽에 있는 페낭 국립공원은 걸어서 공원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작지만, 열대식물이 우거진 정글과 에메랄드 빛 바다 등의 풍광이 펼쳐져 있고, 원숭이나 돌고래와 같은 야생 동물을 만날 수 있는 등 트레킹 코스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공원 내에는 4개의 트레일이 조성되어 있는데, 규모가 작은 만큼 가장 긴 코스가 7km밖에 안 되지만, 가장 높은 지점이 해발 1000m가 넘어 난도가 꽤 높은 편이다. 가장 짧은 코스의 길이는 1.2km로 공원 입구에서 원숭이 무리를 만날 수 있는 '몽키비치'까지 이어진다. 그 밖에 공원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등대까지 이어지는 코스와 서쪽에 자리한 호수로 연결되는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무성한 정글이나 탁 트인 해변, 경사진 언덕 등 코스마다 풍경과 난이도가 다르니 취향과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여행자는 몽키비치를 거쳐 등대까지 향하는 코스를 택하는 편. 공원 최고의 전망을 감상하고 싶다면 정상까지 올라가는 7km 코스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한국 문화 유산의 보고,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Song Ha-jin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라북도.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지속적인 사업 확장으로 이제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주목받는 관광지로 도약하고 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라북도의 매력과 미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본다. 에디터 안휘승 사진 전라북도

전라북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전라북도는 예향으로 전통과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마을 곳곳에서 한복 차림으로 거니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창 고인돌, 백제역사유적지구, 판소리, 김치, 농악 등 다양한 유산을 간직한 역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800만 태권도인의 성지인 무주태권도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2017년엔 세계태권도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새만금은 길이 33.9km의 세계 최장 간척사업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중국과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곧 한중 경협단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전라북도는 맛의 고장으로 비빔밥, 한정식, 막걸리, 고추장 등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어디서나 맛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관광자원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도지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는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는 한국의 생동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지방입니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은 한복 차림으로 사진을 찍거나 맛있는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한국의 대표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가 어디냐고 물으면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답을 쉽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방문객이 매년 전주 한옥마을을 찾습니다. 전라북도 관광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전주 한옥마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탄생시킨 조선의 발상지입니다. 한옥마을 안의 경기전에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보존되어 있고, 국가 서적을 보관했던 사고 또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기전을 중심으로 용기종기 모여 있는 800여 채의 한옥 사이를 거닐면 역사 속 한 장면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전주 한옥마을에서 잠시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올해 역점 관광사업 및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민선 6기 3대 핵심 과제로 '토털관광시스템 구축' 기반마련을 2015년에 추진했고, 2016년에는 전라북도 10대 역점 프로젝트로 '관광자유이용권 전면 실시로 관광패스라인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털관광시스템이란 전통문화, 농산어촌, 청정 생태자원과 각 분야의 모든 인적·물적·기술적 자원을 활용해 전북을 단일 관광지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관광패스라인 구축이란 전북 전역을 하나의 단일 관광지로 지정해 전북을 찾는 관광객이 하나의 카드로 교통, 숙박, 입장료, 기념품 등의 관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털관광시스템을 의미합니다. 2016년 하반기에 있을 시·군 확대에 앞서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면 실시를 위해 시범사업 중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요자 맞춤형 자유이용권 설계 및 다양한 판매 채널 구축, 타깃별 홍보 활동 전개, 도·시·군 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14개 시·군에 통용되는 전북관광자유이용권 발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전라북도 시·군과 관광 관련 업계로 구성된 '해외관광객유치지원단'을 편성, 공동협력사업으로 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의 주요 관광자원인 한옥, 한식, 태권도를 활용한 특수목적관광단을 유치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체류함으로써 전라북도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입니다. 또한, 해외의 영향력 있는 인사를 전북홍보대사로 위촉, 국제적인 전북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많은 관광객이 전라북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전북도태관광 실현과 대표 관광지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북관광!'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관광산업을 3대 역점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빛나는 문화유산은 관광산업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원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국내외

**앞으로 있을 전라북도의
주요 행사를 소개해주세요.**

2000여 명의 선수가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에 모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태권도원에는 한번에 1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 통역 시스템을 갖춘 회의장, 대규모 행사장, 회의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태권도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즐길 수 있는 박물관, 체험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내년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전라북도 무주의 국립 태권도원에서 개최됩니다. 160개국에서 온

**전라북도가 TPO 회원으로서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각오, 기구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통해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라북도는 아시아태평양 각 도시에 힘을 보태는 이웃이자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TPO는 지금까지 지역 간 협력 사업 추진에 큰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그리고 다른 회원 도시와 함께 지역 발전뿐 아니라 도시 간 협력에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아시아 관광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도시와 관광 관련 업계의 협력 마케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도시 간의 협력을

**TPO 회원도시로서
TPO와 회원도시를
위한 조언이나
제안 부탁드립니다.**

모이면 더 힘이 세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거기에 '협력'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크게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서로 손잡고 같은 길을 걷는 협력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세계관광기구의 전문가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을 가장 높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세계 관광시장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Surabaya-CLIP 2016, 성황리에 개최

아시아태평양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의 학생여행교환사업(STEP)인 Surabaya-CLIP 2016이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Surabaya-CLIP 2016은 수라바야 시 현지에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면서 인도네시아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외국인들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엔 5개국에서 25명이 참가했다. 'Let's dive into Indonesian Language and Culture Together!'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수라바야 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참가자들이 인도네시아 문화를 체험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수라바야 시립 언어교육원 'Rumah Bahasa'에 마련된 강의실에서 전문 강사로부터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며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별강연에 나선 렌토 하시잔티(R. A. Retno Hasijanti) Universitas 17 Agustus 1945 Surabaya 대학교 부총장은 수라바야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설명했다. 전통 음식 및 액세서리 만들기, 전통 공예, 무술, 춤 등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여자들은 수라바야 시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수라바야 시의 관광자원과 역사를 피부로 느끼며, 'Surabaya Through My Eyes'라는 주제로 직접 느낀 바를 PPT와 UCC 등으로 제작,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두 명에겐 차기 CLIP 행사에 무료 참여 자격이 주어졌다. 김체연 한국 울산과학대학교 학생과 말레이시아 페낭 시 센트럴 컬리지(Sentral College)의 바하라니(Ahmad Sobri bin Baharani)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올해 하계 CLIP 행사는 오는 8월 한국 통영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

TPO 관광교역전 2016-CHINA 개최

TPO 관광교역전 2016-CHINA가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 광저우 시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엔 TPO와 회원도시인 부산광역시, 통영시, 인천광역시, 해운대구가 참가해 공동 홍보 부스를 운영, 각 도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중국 광둥권 관광객 유치에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특히, 26일에는 광저우 국제관광전 홍보무대에서 진행된 TPO 회원도시 홍보설명회엔 광저우에 소재한 아웃바운드 20여개의 광저우지역 아웃바운드 전문여행사와 4개 매체가 참석하였다. 최근 중국 관광산업의 동향과 신시장 개척, 타 전시 참가자들의 관광자원 및 상품, 가격 등 주요 홍보 및 마케팅 전략·변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및 해외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새로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2015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1320만 명으로 집계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132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위기를 이겨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메르스 사태 이후 곤두박질치기 시작, 급기야 6월과 7월 방한 외국인인 월평균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10월, 메르스 발생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5%)로 돌아서면서 12월까지 3.8% 증가한 365만 명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은 크루즈 운항 증가와 개별여행객(FIT) 증가로 10~12월 사이 13.2% 증가한 163만 명이 방한해 관광시장이 조기 정상화됐음을 확인해주었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6.8% 감소했지만, 이러한 회복세는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빠른 대처와 국내 여행업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2016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방한 관광 붐업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별 맞춤 캠페인을 실시, FIT 유치 확대를 위한 여행 상품 및 할인 정보를 알리는 등 다양한 맞춤형 이벤트와 서비스를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2016 중국여행업 발전 방향 공표

2015년 중국의 국가관광청은 중국관광업에 대해 전례 없는 엄격한 규제 조치로 시장 질서를 정립하고, 여행사 체인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공표했다. '인터넷+' 붐과 각지 자본의 경쟁적 진입으로 인해 중국 관광업의 성장이 가속화됐다. 2015년 중국 관광업은 다방면의 거대 자본으로부터 인수합병 혹은 전략적 투자를 받았고, 관련 투자 규모가 5000억 위안 정도(불완전 통계)로, 그중 온라인 여행 업계의 3분기 투자 및 자금 조달 규모는 450억 위안을 기록, 2014년에 비해 2.4배 정도 증가했다. 그 배후엔 Wanda, 텐센트, 바이두, 하이난 항공, Fosun, 중신국제여행사 등 많은 거대 자본의 투자가 뒷받침되었다. 중국 경제가 극심한 조정기에 들어선 반면, 관광산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2016년엔 관광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를 늘리고, 온라인 관광뿐 아니라 항공, 호텔, 관광 단지 등에 더욱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2015년 해외여행 관광수입은 1500억 위안을 돌파, 해외여행은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다. 글로벌 경제의 하방 압박이 여전히 큰 가운데, 각국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 정책을 시행, 2016년 10월 1일 중국 위안화가 SDR에 정식 가입되면 해외여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얼타이(二胎, 둘째아이)' 정책 실시에 따라 임신과 유아 아이템은 2016 자본시장의 가장 큰 인기 항목으로, 관광업은 '가족여행'을 주목해야 한다. 국내 레저 여행 산업 체인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가족여행 등 여행 형태가 더욱 세분되고, 대량의 창업 단체(비즈니스 팀)가 생겨나면서 2016년은 사업 확장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공유경제'를 지향하는 '투지아'(중국식 에어비엔비) 같은 비표준 숙박 시설이 고속 성장을 기록, 2016년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표준 숙박 시설은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16년엔 투지아와 같은 형태의 회사가 비표준 숙박 영역에 깊숙이 침투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중국 관광업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경향이다. 3대 항공사의 항공권 직판, 민간 공항 개발, 온라인 여행 예약, 관광 운송 서비스, 여행 O2O(luyou O2O) 등도 주목할 사항이다.



일본

2015년 방일 외국인 수, 1973만 명으로 역대 최대

2015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전년 대비 47.1% 증가한 역대 최대인 1973만 7000명을 기록,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통계를 시작한 1964년 이후 최고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2014년 1341만 3000여 명에 비해 600만여 명이 증가한 수치로, 1970년 이후 45년 만에 방일 외국인 수가 출국 일본인 수를 뛰어넘었다. 주된 요인으로는 크루즈 선의 기항 증가, 항공기의 취항 노선 확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항공 운임의 저하, 지속적인 관광 프로모션에 의한 방일 여행객 수요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엔화 약세의 정착, 비자 완화, 소비세 면세 제도 등의 확충도 증가의 큰 힘이 됐다. 시장별로는 주요 20개국 중 러시아를 제외한 19개국 이 과거 최대 수치를 기록했고, 그중 중국은 전년 대비 107.3% 증가한 499만 명을 달성했다. 그 외에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도 처음으로 100만 명을 초과했고, 동남아시아 6개국(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합계 200만 명을 초과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정책 확대

인도네시아가 관광비자 면제 대상 국가를 대폭 확대,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래 방문객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이민국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510만여 명으로 2014년 485만여 명에 비해 4.8% 증가했다. 이번 조치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15개 무비자 허용국에서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등 30개국을 추가해 45개국으로 확대했다. 순수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30일 이내로 체류할 경우 입국허가 비자가 면제된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에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 2019년까지 2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관광객 무비자 허용 국가를 45개국 추가해 90개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는 2015~2019 국가중기개발계획(National Mid-Term Development Plan, RPJMN)에 따르면, 2019년까지 약 20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관광 부문에서 700만 명의 고용 창출을 이룰 계획이며 이미 300만 명이 고용됐다.



말레이시아, 코타바루
2016. 4. 7~4. 9
ASEAN 실랏 축제
장소 MPKB 홀

말레이시아 전통 무술 '실랏'을 기념하는 'ASEAN 실랏 축제'가 4월 7일부터 9일 까지 켈라탄 주의 코타바루 시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400여 명의 실랏 유단자가 참가, 실랏과 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며, 실랏 관련 전시회, 자기방어 세미나, 무술 시범 행사가 열릴 계획이다. 아직은 세계인에게 생소한 실랏을 축제를 통해 널리 알릴 좋은 기회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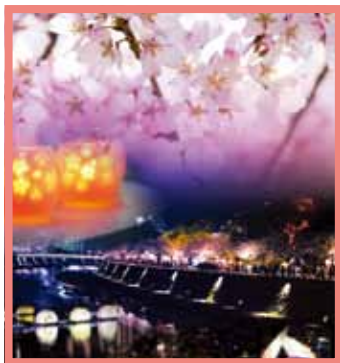
대한민국, 경주 | 2016. 4. 9
제25회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
장소 경주 일원

경주시, 한국관광공사, 일본 요미우리신문 서부 본사가 주최하고, 경주체육회가 주관하는 '제25회 경주 벚꽃 마라톤대회'가 경주 보덕동 주민센터 앞에서 4월 9일 개최된다.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종목으로 구성된 이번 대회는 1만 2000여 명이 참가, 벚꽃으로 수놓인 경주의 아름다운 거리를 달리게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완주자 예겐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2016. 4
해양 관광 앰버서더
장소 바하리 박물관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해양 관광 박람회. 세계의 젊은 관광객들에게 동남아 최대 해양국인 인도네시아의 해양 문화와 관광업계를 소개하는 행사로 매년 자카르타의 바하리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각종 교육 클래스와 세미나,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자카르타 투어, 디너 리셉션 등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일본, 가고시마 | 2016. 4. 1~4. 3
벚꽃 등불 축제
장소 고쓰키 강변 녹지

매년 봄 가고시마 고쓰키 강변에서 열리는 대규모 등불 축제. 만개한 벚꽃을 배경으로 일본 전역에서 만든 가지각색의 등불을 감상할 수 있다. 축제 기간 방문객을 위한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이 마련되며, 각종 음식과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와 전통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밤에는 환하게 켜진 등불과 강 위에 뗏목처럼 줄지어 떠내려가는 벚꽃 잎이 환상적인 정경을 연출한다.

중국, 다렌 | 2016. 4. 25~4. 28
2016 다렌 제8회 세계 백신 총회
장소 다렌 국제회의센터

2016 다렌 제8회 세계 백신 총회(WCV)가 2016년 4월 25일에서 28일까지 다렌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는 백신 연구의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 백신 처리 공정, 생산과 제조, 사업 협력 등을 주제로 한 30개 이상의 포럼으로 구성되며, 백신 연구 분야의 최신 자료와 정보를 공유한다는 목적 아래 진행될 계획이다. 제7회 국제 DNA 계승 행사와 동시에 진행되며, 노벨상 수상자 및 국내외 학술전문가와 기업가들의 주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베트남, 호치민 | 2016. 4. 18~4. 21
라이프스타일 베트남
장소 탄빈 컨벤션 센터

베트남 최대 규모의 라이프스타일 박람회. 올해는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호치민의 탄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며, 공정무역을 주제로 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이 소개된다. 홈 데코레이션 제품은 물론 기프트웨어, 하우스웨어, 장난감, 실내 및 아웃도어 가구, 인테리어 벽지, 패션 액세서리, 신발 등 베트남 각지에서 제작한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그 밖에 런웨이 워크나 전통 공연 등의 이벤트가 진행되며, 박람회 기간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코트도 준비된다.



중국, 정저우 | 2016. 4. 9
황제고향 대제전
장소 정저우 신정 황제고향

병신년 황제고향 대제전이 2016년 4월 9일 정저우시 신정 황제고향 관광지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제전은 '같은 뿌리, 조상, 기원 그리고 평화, 화목, 화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대제전 기간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 황제문화국제포럼, 화화 및 서예 작품전, 중국단편영화 콘테스트 등의 행사와 국외 교포들과 함께하는 '황제예배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샤오관시 | 2016. 4. 30~5. 2
관음산 꽃놀이, 비파 따기 축제
 장소 샤오관 관음산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샤오관시의 관음산에서 열리는 축제. 5월은 관음산의 코스모스가 만개하는 달로 알록달록한 색을 띤 코스모스가 관음산의 드넓은 초원을 가득 메우는 환상적인 풍광을 볼 수 있다. 축제는 관음산 전역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행사와 먹거리가 준비된다. 5월은 영남 지방의 명물 '비파' 수확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다. 가족과 함께 영남 지방에 열리는 비파 따기 축제에 참가해 비파 따기도 체험하고 새콤달콤한 비파를 맛보는 것은 어떨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2016. 5. 15~6. 15
컬러 오브 말레이시아 축제
 장소 쿠알라룸푸르 일원

말레이시아의 다민족 문화와 역사 유산을 기념하는 쿠알라룸푸르 최대 규모의 문화 축제. 매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광장을 포함한 쿠알라룸푸르 시 일대에서 열린다. 학생, 공무원, 예술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7000여 명의 참가자가 전통 공연, 콘서트, 퍼레이드 등을 펼치며 쿠알라룸푸르 전체를 축제의 도가니로 만든다. 축제 기간 중엔 퍼포먼스 외에도 다양한 쇼핑 프로모션이 진행되며, 숙박이나 식사를 위한 편의시설도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는 10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축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시모노세키 | 2016. 5. 2~5. 4
시모노세키 해협 축제
 장소 시모노세키 일대

매년 5월 초에 개최되는 시모노세키 해협 축제는 간몬 해협을 무대로 펼쳐졌던 역사적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대규모 축제다. 800여 년 전 일본 내전에서 패한 헤이케 최후의 왕 안토쿠를 기리기 위한 80여 척의 선박이 펼치는 해상 퍼레이드,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무사들이 펼치는 '무사행렬' 등, 시모노세키의 역사에 얽힌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구
 2016. 5. 4~5. 15
대구 봄축제
 장소 국채보상로, 동성로, 약령시 일원

대구시 봄축제가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국채보상로와 동성로, 그리고 약령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5월 초에 열리는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약령시한방문화축제, 동성로축제, 패션주얼리리뷰 등과 연동해 진행된다. 국제적 규모의 퍼레이드, 한방 무료 진료 및 체험관, 버스킹 대회, 주얼리 패션쇼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울주군 | 2016. 5. 5~5. 8
2016 울산 옹기축제
 장소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일원

국내 최대 규모의 옹기 집산지인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열리는 축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 축제로 선정된 울산옹기축제는 이번 제16회를 맞아 '흙·물·불·바람'을 테마로 다양한 체험 행사와 퍼포먼스, 마당극, 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는 방문객이 옹기의 우수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옹기난장촌'과 '옹기장수촌' 등의 테마촌을 선보이며, 옹기가마 별빛콘서트 등 야간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016. 5. 20~5. 22
태평양 국제 관광 엑스포
 장소 극동연방대학 캠퍼스

세계 관광 업계의 동향과 여행 트렌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국제 규모의 관광 엑스포.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을 포함한 태평양 국가에서 300여 업체가 참여, 다양한 관광 상품과 마케팅 아이디어 등을 선보인다.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관광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며, 업계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자리이기도 하다. 세미나와 워크숍 등이 계획되어 있고, 그 밖에 문화 체험이나 전통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중국, 가오슝 | 2016. 5. 22
2016 가오슝시 교향악단 음악회
 장소 가오슝 지역 홀

가오슝시 교향악단 음악회가 이번 5월 22일 지역 홀에서 열린다. 올해는 쉐리자베스 바이올린 콩쿠르 최연소 우승자 바딤 레핀이 특별 연주자로 참여, 더욱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완벽한 연주뿐 아니라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음색으로 전 세계 클래식 팬의 사랑을 받아온 바딤 레핀은 쉐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당시 영국 신문에서 극찬했을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바딤 레핀이 가오슝시 교향악단과 여는 첫 공연으로 지금까지 중국에서 보지 못했던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코타바루 | 2016. 5. 31~6. 4

켈라탄 국제 연날리기 축제

장소 게팅 해변

5월 말에 코타바루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게팅 해변에서 열리는 켈라탄 국제 연날리기 축제를 놓치지 말 것. 전 세계에서 코타바루를 찾은 연 애호가들이 펼치는 연날리기 대회를 구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켈라탄 전통 연 '와우 부란'을 포함한 세계의 다양한 연을 만날 수 있다. 축제 기간 중엔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 스탠드와 직접 전통 연을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장도 마련되며, 길거리 퍼포먼스나 미니 콘서트 등의 이벤트도 열려 연 외에도 말레이시아의 축제 문화를 만끽할 수 있다.



중국, 장자제 | 2016. 6. 9

장자제 용선 축제

장소 장자제 루수강

용선 축제는 장자제와 루수 두 지역 사람들이 중국의 시인 굴원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굴원이 맥라강에 투신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루수 사람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 잇달아 배를 타고 그가 물에 빠진 곳을 향해 노를 저어 나갔는데, 그 광경이 1000개의 배가 경주하는 듯한 모습과도 같아 이를 기념하는 의미로 매년 5월 5일 축제를 열었다. 전설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루수 강이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용선 경기를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은 분명하다. 축제 기간 장자제시 전체가 인파로 북적이는데, 경기가 시작되면 우레와 같은 함성을 들을 수 있다.



일본, 기타큐슈 | 2016. 3. 19~6. 5

2016 봄 플라워 축제

장소 그린파크

3월부터 6월까지 기타큐슈 그린파크에서 열리는 대규모 꽃 축제. 비올라, 튤립, 네모필라, 금어초 등 16종의 꽃 15만 송이로 그린파크 일대를 화려한 꽃의 바다로 조성해놓는다.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국제 행사로 축제 기간 중 일본 전역은 물론 한국, 중국, 타이완 등에서 축제 구경만을 위해 기타큐슈를 방문하는 여행者也 많다. 꽃뿐만 아니라 축제 기간 중엔 각종 공연과 퍼포먼스를 비롯해 그린파크의 마스코트 '기타큐맨'의 무대와 벵룩시장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부산 | 2016. 6. 2~6. 12

2016 부산국제모터쇼

장소 벵스코

2001년에 벵스코 개장 기념 전시회로 시작한 부산 국제모터쇼가 올해는 '미래의 물결, 감동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부산 국제모터쇼는 매년 국내외 1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모터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KAMA, KAIDA, KAICA 등 한국 자동차산업을 대변하는 기관들과 공동으로 전시회를 운영하며,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콘셉트 자동차도 함께 전시, 미래 기술의 비전을 제시한다.

국 자동차산업을 대변하는 기관들과 공동으로 전시회를 운영하며,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콘셉트 자동차도 함께 전시, 미래 기술의 비전을 제시한다.



중국, 칭다오 | 2016. 6. 10~6. 13

2016 칭다오 차 박람회

장소 칭다오 국제전시센터

칭다오는 산둥반도를 대표하는 도시로 중국에서 가장 경제 발전력이 높은 도시 중 하나다. 칭다오 맥주를 포함한 많은 중국의 유명 기업들이 칭다오에 자리하고 있어 '중국 브랜드의 수도', 또는 '세계 맥주의 도시'로 불리기도 한다. 칭다오 차 박람회는 이런 칭다오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통해 중국의 차 문화를 세계로 알리기 위해 열리는 대규모 행사다. 중국 각지에서 재배한 차와 차 음료, 차 과자 등 다양한 차 제품을 만날 수 있으며, 중국 전통 차 문화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 2016. 5. 22

2016 루작 올렉 축제

장소 캄방 제폰

루작 올렉은 수라바야의 별미 요리로 '론톤'이라는 떡과 같은 음식에 두부, 삶은 채소, 우설 등을 가미해 땅콩과 고추로 만든 소스에 버무린 것이다. 매년 5월이면 수라바야의 캄방 제폰 지역에서 루작 올렉 축제가 열린다. 1500명의 참가자가 자신만의 레시피로 만든 루작 올렉을 선보이며, 그중 가장 많은 루작 올렉을 판매했던 참가자에게 상금이 주어진다. 단 하루만 열리는 축제지만, 매콤한 맛이 일품인 루작 올렉을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행사로 매년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다.

TPO Members

77 city members, 38 industry members

CITY MEMBERS

CHINA

Chengdu Urumqi
Qingyuan Weihai
Dalian Yantai
Foshan Zhangjiajie
Guangzhou Zhaoqing
Hangzhou Zhengzhou
Qingdao
Sanya
Shanghai
Shaoguan
Shenyang
Suzhou
Tianjin

CHINESE TAIPEI

Kaohsiung
Taichung
Tainan

THAILAND

Bangkok

VIETNAM

Danang
Hai Phong
Hanoi
Ho Chi Minh

MALAYSIA

Georgetown
Ipoh
Kota Bharu
Kota Kinabalu
Kuala Lumpur
Melaka
Taiping

INDONESIA

Jakarta
Surabaya
Yogyakarta

PHILIPPINES

Manila

KOREA

Andong
Busan
Busan Haeundae-gu
Busan Jung-gu
Buyeo-gun
Changwon
Chuncheon
Daegu
Daejeon
Donghae
Gangneung
Geoje
Gimhae
Goyang
Gunsan
Gwangju
Gyeongju
Hadong-gun
Iksan
Incheon
Jeonju
Namhae-gun
Pohang
Sokcho
Tongyeong
Ulsan
Yeongju
Jellabuk-do
Ulju-gun

RUSSIA

Vladivostok
Irkutsk

JAPAN

Fukuoka
Kagoshima
Kitakyushu
Kumamoto
Miyazaki
Osaka
Shimonoseki
Takeo

INDUSTRY MEMBERS

CHINA

Guangzhou Garden Hotel
Guangzhou Star Cruises Co., Ltd.
GZ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Ltd.
Shandong Channe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China Travel international (Xinjiang) Ltd.
China Comfort X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Dalian Gul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ITS Guangdong
China Travel International Sanya Co., Ltd.

JAPAN

Kagoshim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Fukuok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JTB Corp. Fukuoka Office

KOREA

BEXCO
Busan Tourism Association
Arum Travel Service Co., Ltd.
Cheongsong Travel Service Co., Ltd.
Road ABC Media Co., Ltd.
TourJapan Co., Ltd.
Intravel Ltd.
Haeundae Centum Hotel
Daegu Tourism Association
Lee Convention
Busan Tourism High School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Solar Travel Agency
BS FunTour
Benikea Jeonju Hansung Tourist Hotel
Sky Tour
JB Tour
PANWORLD Dream
Tour Fun Co., Ltd.

MALAYSIA

Taiping Tourist Association

MONGOLIA

Ancient Nomads Tour Agency

RUSSIA

Gavan Tour-center Co. Ltd

U.S.A

MCM Group Holdings Ltd.

VIETNAM

Haiphong Vanhoa One Member Limited Corporation
Haiphong Vocational College of Tourism

KOREA

TourFun Co.,Ltd.

INDIA

Abroad Consultancy India Pvt. Ltd.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Contact Information

Address. TPO Secretariat, No.7 Jonghabundongjang-ro, Yeonje-gu, Busan 47500, Korea

TEL. +82-51-502-2984~7 FAX. +82-51-502-1968

E-mail. secretariat @ aptpo.org

Web Site. <http://www.aptpo.org>